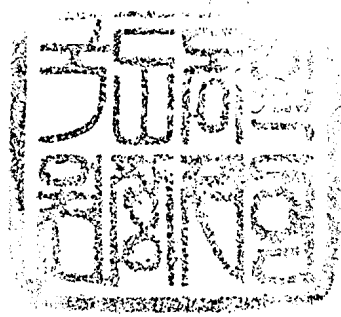


3A82  
209.09.25

알파벳 순으로 說明한

# 內獨關係現況 案内書

—Auskünfte A—Z zum Stand  
der innerdeutschen Beziehungen—



행정안전부  
" 교육  
" 인자교육

國 土 統 一 院



## 안 내 말

東西獨의 關係는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兩獨간의 緊張緩和 및 關係正常化政策 發展과 더불어 많은 개선이 있었다. 그것은 인간에게 실제적인 이익이 되어야 한다는 목표아래, 실제적인 共存의 여러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통하여 점진적인 關係改善을 이루어 간 것이다.

1972년 “基本條約” 체결로 東西獨간에는 경제교류, 인적교류, 체신교류, 스포츠교류, 문화예술교류 등 비정치적분야에서의 교류가 활성화 되었으며, 그후에도 계속적인 交渉을 통하여 追加協定을 체결하고 각 분야의 교류를 촉진하여 왔다.

“알파벳순으로 설명한 內獨關係現況案內書”는 西獨 內獨關係省 發刊資料인 “Auskünfte A-Z zum Stand der innerdeutschen Beziehungen”을 번역한 것으로, 東西獨교류 전반적인 분야의 중요用語에 대하여 根據條約과 함께 간단한 설명을 첨가하여 A, B, C, ……순으로 수록한 용어해설집이다.

오늘의 현실에서 이러한 東西獨關係의 發展을 살펴보는 것은 統一에 대한 우리의 절실한 염원과 노력을 재확인하고 統一實現을 모색하는 길에 이어지는 것이라고 믿는다.

이 책을 통하여 東西獨關係現況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統一노력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1983. 10.



## 序 文

西獨과 東獨에 사는 많은 市民들은 統獨政策의 여러 成果들을 아주 직접적이고도 個人的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電話通話는 더 이상 交換을 거치지 않고 직접 自動으로 할 수 있게 되었고, 東獨 여행도 自動車를 가지고 가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고, 동독으로 보내는 소포속에 커피를 얼마나 포장할 수 있는가를 더 이상 묻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최근 수년간 양독 관계에는 사람들의 편익을 위해서 변화된 중요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것들이 오늘날에는 자명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이것은 오랫동안 어려운 交渉의 결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여기에는 退步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1980년 10월부터 東獨 여행시 最低交換額이 引上된 것이 그것입니다.

聯邦政府는 아직도 남아있는 많은 問題들을 解決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미 이루어 놓은 것은 지켜야 하겠으며, 아직 바라는 것이 많다고 해서 이를 과소 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內獨關係省 長官

에곤 프랑케



## 國境에서의 事務處理( Abfertigung an der Grenze )

근 거 : 1971년 通過協定

1972년 6월 이후 西베를린行 및 西베를린發 通過交通에 있어서는, 長時間의 待期時間, 번잡한 調查節次, 自動車 및 貨物檢索이 없어졌다.(檢索 및 通過取消은 상당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 한 한다.)

이에 따라서 自動車, 버스 또는 列車內에서 신속하게 事務를 處理하게 되고, 個別的인 料金支拂은 하지 않는다.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은 西베를린發 또는 西베를린行 여행을 하는 西獨 및 西베를린 市民으로서 年間 약 1,500萬名에 달한다.

貨物の 通過運送의 경우 간단한 書類節次로 가능하며, 봉인된 貨物車(컨테이너)의 경우에는 積載調查가 없다.

베를린 往來以外에는, 東獨은 國境事務處理에 관해서 條約上의 의무가 없다. 그리하여 전반적으로 엄격한 檢索을 하며 個別的인 경우에는 정밀한 檢索을 하고 있다.

## 自動車 利用( Autobenutzung )

근 거 : 1972년 交通協定 關聯規則  
1974년 및 1976년 東獨政府聲明  
1979년 一括 決濟協定

1972년 10월 이전에는 승용차를 가지고 가는 東獨行 여행은 아

주 드물게만 허가가 나왔다. 1972년 10월부터 1974년 12월까지의 자기 차를 가지고 동독으로 들어가는 것은 특별한 要件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가능했다.

1974년 12월 이후에는 東獨政府의 確約에 따라 “대부분의 경우 특별한 要件이 없이도” 허가가 나오게 되었다. 따라서 승용차를 가지고 동독으로 들어가는 여행자의 숫자는 상당히 증가하였다.

동독에서 운전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동독의 도로교통법이 서독의 그것보다 한층 더 엄격하다는 점이다.

西獨에서 동독으로 들어간 승용차 운행의 숫자는 1970년 83,500대에 비해 1980년에는 827,000대에 달한다.(베를린往來 除外) 가장 많은 이용횟수를 기록한 通過所는 헬름슈테트(Helmstedt)와 루돌프슈타인(Rudolphstein)이다.

接境地域의 1日 往來의 경우에 있어서도 1976년 10월 이후에는 자기 차로 東獨을 往來하는 許可가 다른 여행왕래와 마찬가지로 나오고 있다.

1980년 1월 이후에는 승용차를 가지고 東獨여행을 하는 경우 각 여행자는 도로사용료를 내지 않게 되었다. 1979년 체결된 長期 一括決濟協定에 따라서 聯邦政府는 年間 總額 5,000만DM을 東獨에 支拂한다.



## 베를린(Berlin)

근거: 1971年 4大國協定 및 管轄 獨逸當局間 체결된 規則, 上院과 東獨間 체결된 協定. (1972~1977)  
聯邦政府와 東獨間 체결된 協定 1971, 1975, 1977/78, 1980.

1972年 6月 以後,

- 西獨과 西베를린間的 아무런 제약없는 왕래가 가능하게 되었다.
- 西베를린 市民의 東베를린 및 東獨旅行이 가능하게 되었다.  
(最低交換額 引上 以前에는 年間 300~340萬名이 여행, 1980年 10월 이후에는 50%가 감소)

1974年 12월 이후 西베를린 市民이 동독을 여행하는 경우 全東獨地域에서의 滯留許可를 받게 되었다.

그밖의 措置

- 對東베를린 및 東獨 電話交換許可(1952년부터 1971년까지 直接的인 電話通話는 없었다)
- 東獨領土內에 있는 地域(西베를린) 規則 및 域間交易,
- 境界地域에서 事故發生時的 救助措置에 관한 規則,
- 슈판다우(Spandau) 堰 建設,

- 市政問題에 관한 規則, (예컨대, 下水 및 쓰레기 처리)
- 封印된 貨物 (콘테이너) 交流,
- 登山交流 및 休暇旅行 往來,
- 西베를린의 西獨과의 結속의 유지, 발전 : 이것은 특히 다음과 같은 事項을 통해서이다.
  - △ 西獨이 체결하는 條約에 西베를린도 包含,
  - △ 西베를린 市民에게 西獨旅券 賦與,
  - △ 西獨의 在外公館을 통한 西베를린 市民의 領事保護,
  - △ 國際機構에서의 西베를린의 이익 代辯

베를린 (Berlin) - 마리에보른 (Marienborn) 間의 高速道路 및 베를린 순환고속도로의 一部 建設에 관한 1975년 및 1977년의 協定을 통해서, 그리고 旅行列車을 통한 交流의 改善을 통해서 베를린行 및 베를린發 交流는 크게 쉬워졌고 가속화되었다.

같은 목적을 위해서 체결된 協定으로는 1978년 11월의 交流協定이 있는 바, 이는 베를린과 함부르크 (Hamburg) 間의 新高速道路 建設, 西方側에서 베를린으로 들어가는 텔토우 (Teltow) 運河의 開通 및 西베를린行 通過水路上의 긴급수리작업이나 로텐제 (Rothensee) 의 예인기의 긴급수리작업을 규정하고 있다.

그밖의 交流改善은 1980년 4월의 協定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이는 헬레스하우젠 (Herleshausen) / 바르타 (Wartha) 간 高速道路 建設, 內陸水路 (미텔란트運河 Mittelland - Kanal) 의 擴張 및 베를린

－ 헬름슈테트 ( Helmstedt ) 間 鐵道複線化 그리고 旅客列車을 위한 洗車施設을 룬멜스부르크 ( Rummelsburg ) 에 건설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 東獨居住者의 西獨訪問 ( Besuche von DDR - Bewohnern )

근 거 : 1972 년 交流條約과 관련  
한 規則

### 緊急한 家事事由에 의한 訪問 :

1972 년 10 월 이후에는 아직 연금생활 연령에 달하지 못한 親戚 ( 祖父母, 父母, 兄弟姊妹, 子 ) 도 出生, 結婚, 結婚紀念日 및 生命에 위험이 있는 罹病 및 死亡時 西獨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다.  
1980 년 한해동안 40,500 명의 東獨居住者가 西獨을 방문했다.

### 年金生活者의 訪問 :

年金生活者의 여행은 현재 총 30 일 限度內에서 1 年에 數回 가 능하도록 되어 있다. 서독으로 여행한 年金生活者의 수는 1980 年에 약 1,554,000 名에 달했다. 1972 年 이전에는 年間 約 1 百萬 名 정도였다.

이 이외에도 事務次 訪問者, 예술가, 貨物車運轉士 등의 東獨人들 이 西獨에서 滞在할 수 있게 되었다. (年間 約 200,000 名 )

## 兩獨關係 ( Beziehungen zwischen beiden deutschen Staaten )

광범위한 改善의 기반 : 1972년 基本條約

緊張緩和 및 關係正常化 政策의 발전과 더불어 兩獨關係에는 많은 改善이 있었지만 반면에 兩獨關係에는 새로운 負擔이 지워진 면도 있다.

負擔의 주된 原因은 東獨當局이 共產主義體制의 安定은 東獨住民이 西方國家와 어느 정도 意思交流를 하는가에도 달려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는 데 있다.

장래에 있어서도 兩獨間의 相異한 立場, 相異한 目標 때문에 兩獨關係正常化 實現의 途程에는 많은 문제와 退步가 예상된다.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利害關係 調整政策은 계속 추진되고 있으며, 平和의 要求, 國家利益 및 人道主義의 要求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 域間 船舶往來 ( Binnenschiffahrt )

근 거 : 1971年 通過協定  
1972年 交流協約  
1975, 1977, 1978, 1980  
交流協定

1972년 10월이래, 1945년 이후로는 최초로 相對國 영토를 통과하여 第3國으로 가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엘베강 연안의 라우엔베르크 (Lauenberg) 와 슈낙켄부르크 (Schnackenburg) (國境都市) 사이에 아무런 마찰없는 船舶往來가 보장되고 있다. 東獨의 水路를 이용하는 데에는 특별한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船舶證明書 및 鑑定書의 承認만으로 족하다). 停船所의 수도 증가하였다. 특별하역을 위한 內陸進入은 허용된다.

베를린에 있어서는 1977년 12월 1일 슈판다우堰 建設協定이 체결되었다.

베를린市 地域의 船舶往來에 있어서 終戰이후에 반드시 迂廻해야 했던 것을 피하기 위하여 텔토우運河가 開通되었고, 迂廻하지 않는 直行 船舶往來가 再開되었다. 直行往來는 通過往來 體制에 類推하여 이루어졌다. 이를 위하여 7,000 만DM이 준비되어 있다.

1978년 11월의 협정에 따라서 東獨은 內陸運河, 엘베 - 하펠 (Elbe - Havel) 運河 및 로텐제 (Rothensee) 의 船舶예인소에서 치뤄야 했던 負擔을 제거하였다. 西獨政府는 베를린 運航船舶의 通過往來時 停泊조치를 위하여 1億2,000萬DM을 지불한다.

1980년 4월 協定은, 東獨은 內陸運河의 國境地域과 할덴스레벤 (Haldensleben) 지역간의 27 km 區間을 확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西獨政府는 여기에서 규정된 1981년부터 1984년까지의 확장공사를 위하여 총 1억5천만DM을 東獨側에 지불할 예정이다.

## 聯邦憲法裁判所 ( Bundesverfassungsgericht )

근 거 : 1949年 基本法  
1972年 基本條約  
1973年 聯邦憲法裁判所  
判決

1973年 6月 5日 聯邦憲法裁判所는 바이에른州 政府가 제출한 基本條約 法律의 副署, 批准, 公布中止 假處分 申請을 棄却하였다.

1973年 6月 21日 獨逸聯邦共和國 ( 西獨 ) 과 獨逸民主主義共和國 ( 東獨 ) 間의 基本關係에 관한 條約 ( 東西獨基本條約 ) 이 效力을 發生했다.

1973년 7월 31일 聯邦憲法裁判所는 基本條約이 合憲임을 滿場一致로 確認하였다. 判決理由로 든 것은 東獨과의 條約政策의 基礎가 合憲이라는 것이었다.

## 캠 핑 ( Camping )

근 거 : 1976年 東獨側 告示

1976년 5월부터 東獨으로의 캠핑여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오스트해 ( Ostsee ) 와 튀링겐森林 ( Thüringer Wald ) 사이에 24개 캠핑지가 西獨에서 온 캠핑여행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캠핑지는 5월부터 9월까지 開場된다. 캠핑許可要件은 東獨의 旅行當局과 協定을 맺

은 西獨의 당해 旅行當局에 記載하는 것이다.

이에 관한 상세한 情報은 “ 77項의 실제적인 案内事項 ” ( “ 77 Praktische Tips ” ) 이라는 팜플렛에 수록되어 있다.

東獨을 거쳐 第3國을 여행하는 通過旅行  
( Durchreise < Transitverkehr > durch die DDR in  
andere Länder )

근 거 : 1972年 基本條約關聯 規定  
1972年 交流協約

1973년 6월이후 동독을 통해서 第3國( 예컨대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스칸디나비아諸國 )으로 여행하는 경우에 通行을 정지시킬 수 있게 되었고, 동독 여행당국의 사무처리상의 記帳을 하기 위한 경우 東獨內에서 정지시킬 수 있게 되었다.

1972년 10월이후 체코슬로바키아로의 通過旅行을 위하여는 라우엔부르크 - 호르스트 ( Lauenburg - Horst ) 通過所가, 스칸디나비아諸國,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로의 旅行을 위하여는 헤르레스하우젠 - 바르타 ( Herleshausen - Wartha ) 通過所가 추가로 개통되었다.

1974년 7월에는 폴란드行 通過旅行을 위하여 포르스트 ( Forst ) ( 코트부스 < Cottbus > 區域 ) 의 通過所가 개통되었다.

1972年 10月 以後 域間往來 西獨 船舶의 경우 東獨을 거쳐 체코

슬로바키아 및 폴란드로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었다.

第3國으로의 通過旅行에 관한 상세한 언급은, 備忘錄 “接境地域 1日滯留를 包含한 東獨旅行과 東獨通過 第3國 旅行”(“Reisen in die DDR mit Tagesaufenthalten in grenznahen Bereich und Reisen durch die DDR in andere Länder”)에 수록되어 있다.

### 鐵道( Eisenbahn )

근 거 : 1972年 交流協約 關聯規定  
1971年 通過協定  
1974年 原則協定  
1975年, 1980年 交流協定

1980年 4月の 協定에 의하여, 베를린과 헬름슈테트( Helmstedt ) 間의 鐵道往來에 있어서 完全 複線運行이 가능하도록 되었다.<반제 ( Wannsee ) / 그리이프니츠제 ( Griebnitzsee ) 및 포츠담( Potsdam ) / 베르더( Werder ) 區間線路 建設> 룬멜스부르크( Rummelsburg ) 洗車場의 建設로 인하여 西베를린行 通過旅行 車輛의 편의가 개선되었다. 서독정부는 동독지역에서 드는 비용을 위하여 1981년부터 1983년까지 8천만 DM를 지불하기로 되어 있다.

交流協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事項들이 合意되었다.

— 運行計劃의 改善 및 擴大, 交流增大에 對處,



- 1972년 9월의 鐵道境界協定 (技術的인 문제 및 責任所在問題)
- 貨物運送의 簡便化,
- 聯邦鐵道(西獨)와 國營鐵道(東獨)間的 情報交換,

베를린 往來에 있어서 境界線上의 停止가 단축되었다. 東獨의 旅行往來時 往復票를 끊을 수 있게 되었다.

베를린 往來 改善을 위한 東獨側과의 交渉 結果 1975년에 다음과 같은 合意에 도달하였다.

- 旅行列車의 往來를 위하여 슈타아켄 (Staaken) 通過所를 개설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함부르크行 運行時間을 45分 短縮하게 되었다
- 西베를린에 3개의 추가 정거장 설치 : 반제 (Wannsee), 샤를로텐부르크 (Charlottenburg), 슈판다우 (Spandau)
- 車輛의 추가연결 및 運行시간의 단축

어려운 法的 問題가 있었지만 1980년 1월에는 獨逸國營鐵道와 함께 소위 西베를린의 鐵道南部路線 (Eisenbahnsüdgelände)에 관한 궁극적인 合意를 보았다.

- 新貨物驛 建設,
- 포츠담의 貨物驛, 기지驛, 기타 과거 이용되지 않았던 鐵道施設을 새로운 都市計劃上 設計에 넣는다는 事項

## 相續財産 ( Erbschaftsgut )

근 거 : 1972年 基本條約 規定  
1976年, 1977年 東獨의  
告示

東獨에서 西獨으로 가는, 또는 西獨에서 東獨으로 가는 相續財産, 移徙物品의 運搬은 거의 문제가 없다.

東獨에서의 搬出 搬入을 위한 區 내지 市議會의 承認은 필요하지 않다. 搬入 搬出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稅關當局에 申告하는 것으로 足하다. 특별한 要件은 다만 몇가지 物品에만 요구된다. 예컨대 自動車, 骨董品, 貴金屬이 그 예이다.

旅行往來時의 持參은 1976년 9월부터 허용되고 있다.

## 離散家族再會 ( Familienzusammenführung )

근 거 : 1972年 基本條約 關聯規定

東·西獨은 기본조약 第7條에서 人道的인 問題에 관한 규정을 다룰 用意가 있음을 합의하였다.

1970년 이후 약 32,500명이 離散家族 再會를 위하여 東獨에서 서독으로 여행하였다.

또 1970년 이후에는 서독정부의 노력으로, 12,100명의 政治犯이

東獨의 감옥에서 석방되는데 성공했다.

## 映画와 TV ( Film und Fernsehen )

근 거 : 1972年 基本條約 追加 議  
定書

영화와 TV分野의 協力 - 交流 내지 영화·TV商品의 交易은 최  
근에 와서 개선되었다.

1972년부터 1980년 초까지 西獨으로부터 103편의 서독 劇映画  
및 66편의 기타 映画 그리고 241편의 外國劇映画 上映權이 東獨  
에 수출되었다. 동독으로부터는 446편의 극영화 및 168편의 기타  
영화가 수입되었다.

## 脫出援助( Fluchthilfe )

참 조 : 1973년 11월 5일자 脫出援助者 判決에 대한 聯邦政  
府의 原則 聲明.  
1978년 3월 9일 獨逸情勢에  
관한 政府 聲明

東獨으로부터의 無斷離脫 및 이에 대한 幫助( "脫出援助" )는 東  
獨法律에 따르면 處罰받게 되어 있으며 그것도 重한 刑事制裁가 가  
해지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우리의 法 내지 正義感情과는 맞지 않

는다. 東獨이 住民의 동독영토로부터의 이탈을 막지 않아야만 탈출 및 탈출원조 문제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西獨과 西베를린 往來의 경우 東獨地域을 통과할 때 東獨의 法規에 違反하여 東獨으로부터 탈출시키기 위하여 사람을 同乘시키는 사람은 通過往來 協定상의 諸權利를 상실하게 된다. 聯邦政府는 영리를 목적으로 通過路를 이용하여 法秩序의 諸規範을 위반하는 사람들에게는 依法處斷한다는 단호한 결의를 보였다.

### 手 數 料 (Gebühren)

근 거 : 1971년 通過協定  
1973년 內閣決議  
1978년 議定書  
1979년 一括處理議定書  
1979년 乘用車免稅協定

聯邦政府는 東獨旅行의 경우 60歲以上 者에게만 비자手數料를 支拂해 준다. 이 액수는 2日以上の 여행인 경우에는 15 DM, 當日訪問의 경우에는 5 DM이다.

西베를린과의 通過往來의 경우에는 각 여행자는 어떠한 수수료도 부담할 필요가 없다. 聯邦政府는 이를 위하여 1978년에 확정한 80年代 全期間 年間 總額 5억 2,500만 DM을 동독에 지불한다.

1980년 1월 이후 승용차를 가지고 東獨旅行을 하는 사람은 도로 사용료를 물지 않게 되었다. 1979년 합의된 長期 一括處理에 따

라서 聯邦政府는 年間 총액 5천만 DM을 東獨側에 支拂한다.

1979년 12월 이후 西獨과 東獨은 相對方에서 들어 온 貨物車 및 버스에 대한 自動車稅의 징수를 상호 포기하였다.(最低交換額項 참조)

### 危 險 惹 起 ( Gefährdung )

근 거 : 1972年 東獨國籍法 改正  
1971年 通過協定

1972년 10월 이후에는 1972년 이전에 동독을 탈출한 옛 東獨 住民이 동독여행을 하는 경우 脫出로 처벌받지 않게 되었다.

西베를린과의 通過往來의 경우 [허가의] 取消 또는 刑事訴追는 확인된 違反의 경우에만 가능하게 되었다.

人的인 事由로 東獨行 및 東獨通過 여행에 의심이 가는 사람은 內獨關係省에 문의토록 한다.

### 膳 物 ( Geschenke )

근 거 : 1972~1976 往來條約 및  
基本條約 關聯規定  
1977년 東獨輸入規定 改正

東獨으로 보낼 선물의 휴대 및 郵送 :

- 商品價格의 免稅限度

500 東獨마르크 ( 여행시 )

( 5 日까지의 短期 旅行時는 1 日當 100 마르크 )

- 필름, 寫眞版, 슬라이드, 印画紙 및 一部 音盤의 流入禁止.

- 기호품의 휴대 및 우송의 경우에는 上限이 없다.

- 空氣密閉容器 ( 통조림 ) 의 휴대 및 郵送도 가능하다.

東獨으로의 小包郵送은 最高 20 kg까지 ( 이 이상의 郵送은 Gen-  
ex - 膳物서어비스를 통해서 )

- 中古 纖維나 신발을 우송할 경우에는 소득증명서가 필요없다.

東獨에서 오는 膳物小包 및 膳物手荷物 :

- 免稅郵送限度 : 100 東獨마르크.

- 동독으로부터의 섬유류 우송은 1 回 우송시 60 동독마르크까  
지 ( 일정한 종류는 제외 )

- 音盤의 輸出入에는 一般的 禁止는 없다.

1974 年 2 月 이후에는 東獨住民에게 서독마르크 ( DM ) 를 주는 것  
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 그 경우 동독에서 주둔가 또는 東獨住  
民의 西獨訪問時 서독에서 주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 돈은 동독의 기관 ( 예컨대 Intershop, Intertank ) 에서 換  
으로 교환하여 사용해야 한다. 이 금액은 輸入에 計上된다. 서독마  
르크 ( DM ) 의 東獨으로의 송금은 不可能하다.

## 保 健 制 度 (Gesundheitswesen)

근 거 : 1972 년 基本條約의 追加  
議定書  
1974 年 保健協定

1974 年 4 月 서독과 동독간에는 保健協定이 체결되었다.

- 방문시 醫療救助  
(旅行者는 他方國에 대하여 無料醫療救助 및 긴급한 경우에 반복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 긴급한 경우의 報告  
(생명에 危險이 있는 모든 疾病 및 死亡한 경우)
- 特別診斷 및 特別治療  
(의학적으로 특별한 경우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상호지원- 특별한 人道的 의미를 갖는다.)
- 의약품의 交流  
(越境旅行時 個人的 必要에 의한 藥品, 의료소모품, 의료기구를 지참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다. 개별적인 경우 약품의 우송도 가능하다.)
- 상호 정보교환  
(전염병 예방과 대책 및 약품문제에 관하여)
- 습관성약물 남용 분야의 협력  
(약품, 吸煙器 등)

旅行往來時 中古纖維類에 대해서는 소독필증이 필요하지 않다.  
保健問題의 조정을 위해서 양국의 保健省은 委員을 임명하였다.  
1977년 醫學情報 교환승인을 계기로 협력은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장기이식 전문가의 교류에 관한 교섭이 계획되고 있다.

### 境界地域情報 ( Grenzinformation )

근 거 : 1972년 기본조약의 追加議  
定書 및 1973년의 追加協  
定

東獨行 境界通過所에 14개 情報所가 설치되었다. 이 정보소를 통  
해서 境界지역에서 신속히 相對側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상호 정보교환 및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는 예컨대

- 火 災
- 洪 水
- 瀑雨 및 山사태
- 전염병
- 森林 및 平野의 害蟲 出現
- 石油에 대한 被害
- 水質 및 大氣汚染
- 爆發事故
- 交通事故



— 放射能危險

境界情報所：

1. 뤼벡/슐루투프 ( Lübeck/Schlutup ) - 셀름스도르프 ( Selmsdorf )
2. 라우엔부르크 ( Lauenburg ) - 호르스트 ( Horst )
3. 슈나켄부르크 ( Schnackenburg ) - 콤로젠 ( Cumlosen )
4. 율첸 ( Uelzen ) - 잘츠베델 ( Salzwedel )
5. 포르스펠데 ( Vorsfelde ) - 외비스펠데 ( Oebisfelde )
6. 헬름슈테트 ( Helmstedt ) - 마리에보른 ( Marienborn )
7. 헤르츠베르크 ( Herzberg ) - 엘리히 ( Ellrich )
8. 두데르슈타트 ( Duderstadt ) - 보르비스 ( Worbis )
9. 헬레스하우젠 ( Herleshausen ) - 바르타 ( Wartha )
10. 노이슈타트 ( Neustadt a.d. Saale ) - 마이닝겐 ( Meiningen )
11. 코부르크 ( Coburg ) - 아이스펠트 ( Eisfeld )
12. 루드비히슈타트 ( Ludwigstadt ) - 프롭스트첼라 ( Probstzella )
13. 루돌프슈타인 ( Rudolphstein ) - 히르쉬베르크 ( Hirschberg )
14. 호프 ( Hof ) - 구텐휘르스트 ( Gutenfürst )

( 境界委員會 참조 )

境 界 委 員 會 ( Grenzkommission )

근 거 : 1972年 기본조약 追加議定  
書  
1973 ~ 1977 政府協定

업무개시 1973년 1월

소관업무: 런던議定書 및 舊占領國協定을 바탕으로 경계의 표지를 검사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更新하고 補完한다.

또 예컨대 水利, 에너지공급, 災害對策과 같은 경계지역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규율을 하는데 기여한다.

1973년 9월 최초의 성과가 나타났다. 그것은 災害對策 및 境界水脈의 保存과 이용에 관한 原則協定의 체결, 경계지역의 연락을 위한 경계정보소의 설치, 1974년 이후 경계수맥 이용계획에 관한 합의 등이다.

뤼베크(Lübeck)灣의 境界線에 관한 合意 및 뤼베크灣의 東獨領內 一部 水域에서의 漁撈에 관한 協定(1974) 締結.

東獨領內에 있는 두데르슈타트(Duderstadt) 食水送水施設에 관한 協定.(1976)

메클렌부르크 - 홀슈타인(Mecklenburg - Holstein)地域 → 東獨境界水域에서의 取水 및 부라운슈바이크(Braunschweig)地域의 食水供給을 위한 에커(Ecker)제곡 댐의 계속이용에 관한 協定(1977)

에커(Ecker)제곡 댐 및 水上交通을 위한 잘레(Saale), 베라(Werra) 利用, 이츠(Itz)의 洪水防止用 貯水池에 관한 合意 (1978)

1978년 11월 政府間 議定書를 통하여 兩獨間의 (엘브<Elb>區間은 例外) 경계선 확정 및 표시 文書作成.

이와 함께 이제까지 잠정 적용되던 協定이 發效되고, 境界委員會의 將來의 事務가 상세하게 협의되었다.

## 接 境 地 域 交 通 ( Grenznaher Verkehr )

근 거 : 1972 년 기본조약 관련 규정  
1976 년 東獨의 告示  
1979 년 東獨의 命令規定

1973 년 7월이후 東獨接境地域의 약 600 만 주민은 증명서를 가지고 ( 3 個月當 9 回訪問 ) 東獨의 53 個 地域 ( 크라이스 < Kreise > ) 에 1 日滯留 旅行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추가로 120 만명도 1979 년 12월 15일부터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 서독의 구역변경으로 새로 창설된 접경지역의 區 ( Landkreis ) 의 전지역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 지역은 솔타우 - 팰링보스텔 ( Soltau - Fallingb. ), 하노버 - 란트 ( Hanover - Land ), 홀츠민덴 ( Holzminden ), 마인-킨치히 ( Main - Kinzig ), 마부르크 - 비덴코프 ( Marburg - Biedenkopf ) 區이다.

1980 년의 접경지역 當日往來는 친척, 친지방문 또는 관광여행으로 392,000 명이 이용했다. 月別 방문자수는 계절별로 다른데, 1980 년 1 월에는 13,400 명, 7 월에는 48,500 명에 달했다.

1980 년 10월 동독정부가 最低交換額을 引上하자 接境地域 往來숫자에 있어서도 퇴조가 나타났다.

## 境界通行路( Grenzübergänge )

근 거 : 1971년 通行協定  
1971년 베를린의회와 東獨  
간의 訪問協定  
1972년 基本條約  
1978년 往來協定 각 관련  
규정

東獨과 西獨의 境界는

9個 道路通行路,

8個 鐵道通行路,

2個 水路,

를 통하여 통과가 가능하다.

9個 通行路 가운데 4個가 1973년 6월의 기본조약 체결이후에 비로소 개통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접경지역의 1日滯留 訪問者를 포함한 東獨行 人的 往來를 위한 것이었다.

서독지역에서 동독으로 가는 通行路

<道 路>

B 104 뤼벡/슐루투프 ( Lübeck/Schlutup ) - 셀름스도르프 ( Selmsdorf )

B 5 라우엔부르크 ( Lauenburg ) - 호르스트 ( Horst )

B 71 베르겐 ( Bergen < Dumme > ) - 잘츠베델 ( Salzwedel ) ( 1973년 6월부터 )

- BAB 헬름슈테트 ( Helmstedt ) - 마리엔보른 ( Marienborn )
- B 247 두델슈타트 ( Duderstadt ) - 보리바스 ( Worbis ) ( 1973 년 6 월  
부터 )
- 헬레스하우젠 ( Herleshausen ) - 바르타 ( Wartha )
- B 19. 오이센하우젠 ( Eußenhausen ) - 마이닝겐 ( Meiningen ) ( 1973  
년 6 월부터 )
- B 4 로텐바하 ( Rottenbach ) - 아이스펠트 ( Eisfeld ) ( 1973 년 6 월  
부터 )
- BAB 루돌프슈타인 ( Rudolphstein ) - 히르쉬베르크 ( Hirschberg )

<鐵 道>

- 뤼베크 ( Lübeck ) - 헤른부르크 ( Herrnburg )
- 뷔헨 ( Büchen ) - 슈반하이데 ( Schwanheide )
- 볼프스부르크 ( Wolfsburg ) - 외비스펠데 ( Oebisfelde ) - 포르스펠데  
( Vorsfelde )
- 헬름슈테트 ( Helmstedt ) - 마리엔보른 ( Marienborn )
- 발켄리이트 ( Walkenried ) - 엘리히 ( Ellrich ) ( 貨物만 )
- 베브라 ( Bebra ) - 게르스툽겐 ( Gerstungen )
- 루드비히스슈타트 ( Ludwigsstadt ) - 프롭스트첼라 ( Probstzella )
- ( 1971 년 이후로는 베를린 往來의 특급화물도 취급 )
- 호프 ( Hof ) - 구텐휘르스트 ( Gutenf<sup>u</sup>rst )

西베를린의 경계통행로 및 구역통행로

<道 路>

드라이린덴 ( Dreilinden ) - 드레비츠 ( Drewitz )

헤어슈트라쎄 ( Heerstraße ) - 슈타아켄 ( Staaken )

볼른홀머 슈트라쎄 ( Bornholmer Straße )

쇼세슈트라쎄 ( Chausseestraße ) ( 1972 년 6 월부터 )

프리드리히슈트라쎄 ( Friedrichstraße )

인발리덴슈트라쎄 ( Invalidenstraße ) ( 1972 년 6 월부터 )

오버바움슈트라쎄 ( Oberbaumstraße ) ( 1972 년 6 월부터 )

프린첸슈트라쎄 ( Prinzenstraße )

존넨알레 ( Sonnenallee ) ( 1972 년 6 월부터 )

발터스도르퍼 쇼세 ( Waltersdorfer Chaussee ) ( 1972 년 6 월부터 )

#### < 鐵 道 >

프리드리히슈트라쎄驛 ( Bahnhof Friedrichstraße ) ( 특급열차 및 地下鐵道 )

베를린 - 함부르크間 高速道路 新設中에 하일리겐제 ( Heiligensee )  
- 슈톨페 - 도르프 ( Stolpe - Dorf ) 및 구도우 ( Gudow ) - 짜렌틴  
( Zarrentin ) 2 개의 추가 통행로 건설이 계획되고 있다.

#### 責任保險(自動車)(Hauptpflichtversicherung < Kfz > )

근 거 : 1972 년 往來協約  
1972 년 管轄協定  
1973 년 HUK 協定

西獨의 표시를 한 自動車의 경우 東獨行 또는 東獨通過 旅行時 保險證明書가 필요하지 않다.

1972년 4월의 兩獨政府 協定을 근거로 하여 1973년 5월 HUK 組合과 東獨 國營保險간에 自動車事故 損害賠償 및 自動車事故時 응급처리 費用에 관한 協定이 체결되었다.

HUK 組合(주소 Glockengießerwall 1, 2000 Hamburg 1, 電話 040 - 321071)은 이 협정에 해당하는 損害發生時 이를 처리한다.

### 이데올로기적 制限 (Ideologische Abgrenzung)

緊張緩和政策의 추진근거 : 1972년 基本條約

東西獨人들 간에 새로이 가능하게 된 擴大交流는 相互 對立하는 社會體制로 말미암아 東獨側의 制限措置를 가져오게 했다. (예컨대 "秘密所有者의 접촉금지) 制限措置는 兩獨關係에 負擔이 되고 있다. 사람들간의 相互 접촉은 獨逸人の 紐帶의 徵表이며, 相互 人的 접촉은 사실상 가장 커다란 장애물인 베를린 장벽을 제거하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通過可能한 것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수백만번 支持 받았고 매일 매일 수만번씩이나 실천되고 있는 協商政策 이외에 다른 合理的이고 가능성 있는 代案이 없다는 사실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情報 ( 交流에 관한 ) ( Information < Verkehr > )

근 거 : 1971년 通過協定  
1971년 交流條約

兩獨政府는 相互交流에 관한 주요자료를 상호 제공할 조약상의 義務가 있다.

- 道路狀態, 高速道路 및 주요 長距離道路의 迂廻, 沈水된 깊이, 水位, 水門作動時間, 船舶運航禁止 기타 往來와 관련된 情報
  - 境界선 通過往來에 영향을 미치는 建設計劃과 施行에 관한 사항
  - 境界區間 및 境界驛의 시설 및 기술의 變更에 관한 사항
- 鐵道往來에 있어서는, 正規 및 特別列車의 운행계획, 客車의 列車編成은 합의하에 이루어진다.

東獨側은 西獨政府에 西베를린發着 通過路上에서 發生한 事故를 通報한다.

## 內獨交易 ( Innerdeutscher Handel )

근 거 : 1951년 베를린協定  
1972년 基本條約

1968년에 비하여 內獨交易의 總額이 약 4倍 증가하였다.



東獨으로부터의 輸入 1980년 59억 DM

東獨으로의 輸出 1980년 59억 DM

前年對比

輸入 + 22.5 %

輸出 + 15.4 %

總計 + 18.7 %

東獨과의 상품·서비스(用役) 交易은 다음과 같은 特徵을 보이고 있다.

- 同 交易은 清算單位 ( Verrechnungseinheit ) 로 結제된다. ( 1 VE < 清算單位 > = 1 DM )
- 支拂은 中央銀行 決濟方式에 따른다.
- 銀行은 相互間 信用貸越, 소위 스윙 ( Swing ) 을 인정하고 있다. 1968년 이후 이 신용대월은 輸出의 25%로 제한되고 있다. 1974년에는 추가로 最高額 8억 5천만 清算單位 ( VE ) 가 확정되었다. 1982년부터는 최고액이 새로 규정된다. 스윙은 수년전부터 東獨側만이 요구하고 있다.
- 東獨과의 상품 및 用役去來에 있어 처음에 요구되던 個別的 許可義務는 거의 一般的 許可로 代置되었다.
- 東獨과의 특별 交易關係는 GATT에서는 Torquay - 議定書 ( Torquay - Protokoll ) 를 통해서, 그리고 EC에서는 歐洲經

濟共同體 追加議定書를 통해서 보장되고 있다.

## 言 論 人( Journalisten )

근 거 : 1972 년 基本條約 關聯規定

基本條約上 東獨은 西獨 및 西베를린의 言論人을 接受할 의무를  
갖는다.

1981 년 初에는 17 個 言論機關의 19 名의 特派員이 東베를린에  
파견되어 있었다.

현재 信任되고 있는 言論機關은,

- 獨逸通信社 ( die Deutsche Presseagentur : dpa ),
- 西獨一般新聞 ( die Westdeutsche Allgemeine Zeitung ),
- 라인-넵카-新聞 및 바덴新聞 ( die Rhein - Neckar - Zeitung  
und die Badische Zeitung ),
- 베스트팔츠紙 ( die Westfälische Rundschau ),
- 南獨新聞 ( die Süddeutsche Zeitung ),
- 라인포스트와 베저쿠리에紙 ( die Rheinische Post und der We-  
serkurier ),
- 슈테른紙 ( der Stern ),
- 프랑크푸르트紙 ( die Frankfurter Rundschau ),
- 獨逸第二 TV ( das Zweite Deutsche Fernsehen : ZDF ),

- 독일라디오協會 (ARD - TV, ARD - 라디오) ( die Arbeitsgemeinschaft der Rundfunkanstalten Deutschlands ( ARD - Fernsehen, ARD - Hörfunk ),
- 쾰른紙 ( die Kölnische Rundschau ),
- 차이트紙 ( die Zeit ),
- 프랑크푸르트 一般新聞 ( die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 新教新聞 ( der Evangelische Pressedienst ),
- 콘크레트紙 ( Konkret ).

1976 년부터 西獨 및 기타 다른 나라에서 파견된 東獨駐在 特派員들의 報道活動 便宜를 위한 조치가 발효된 반면, 言論人들의 活動障礙 및 심지어는 追放 ( 1975, 1976, 1979 ) 조치가 계속 행해졌다. 東베를린駐在 “슈피겔”紙 支局이 1978 년 폐쇄된 바 있다.

1979 년 4 월 東獨은 特派員의 活動條件을 까다롭게 만들었다. 그 예로는 東베를린 이외의 東獨地域 取材旅行時 期限을 정하였으며, 質疑 및 인터뷰에 허가를 얻도록 하였다. 서독정부는 이 때에도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차원에서 동독정부에 강력히 항의를 제기하였다. 서독정부는 이 조치가 言論人協定 및 歐洲安保協力會議 最終 約款에 명백히 違反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東獨政府가 言論活動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의사표명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서독정부는 東獨의 制限措置 및 個別的 妨害에도 불구하고 東獨에서의 直接的인 取材는 東獨에 西獨特派員이 전혀 갈 수 없었던 때에 비하여 발전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본 ( Bonn ) 에는 6 명의 東獨 特派員이 활동하고 있다. 즉,

- 總獨逸通信社 ( Allgemeiner Deutscher Nachrichtendienst ),
- “新獨逸”新聞 ( “Neues Deutschland” ),
- “트리뷴”紙 ( “Tribüne” ),
- 國營라디오委員會 ( Das Staatliche Komitee für Rundfunk ),
- 國營TV委員會 ( Das Staatliche Komitee für Fernsehen ).

라이프치히博覽會와 같은 큰 모임이나 스포츠行事 이외에 다른 기회에도 임시특파원이 東獨으로 들어갈 수 있다.

서독의 많은 임시특파원들은 동독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取材 報道하고 있다.

## 어린이旅行 ( Kinderreisen )

근 거 : 1976 년 東獨의 通告

1976년 10월 이후에는 어린이도 扶養權限者를 동반하지 않고도 동독에 있는 친척이나 친지를 방문할 수 있게 되었다. 단 이때에 어린이를 체류지까지 데리고 오고, 거기에서 다시 데리고 가야 한다.

## 委員會와 專門家會談 ( Kommissionen und Expertengespräche )

근 거 : 1971 년 通過協定  
1972 년 往來條約  
1972 년 基本條約  
1974 년 保健協定  
1974 ~ 1980 년의 諸協定

兩獨間的 條約에 따라서 3 개의 委員會가 구성되었다.

- 通過委員會 ( " Transitkommission " ) : 通過協定을 적용하는데 있어서의 難點과 見解差異의 조정
- 往來委員會 ( " Verkehrskommission " ) : 往來條約을 해석함에 있어 때때로 나타나는 견해차이의 解明
- 境界委員會 ( " Grenzkommission " ) : 境界표시를 檢査하고 필요한 경우 새로 만들며, 그밖에 境界선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한다. ( 境界위원회 참조 )

보건협정이 발효되면서 保健問題 담당위원이 임명되었다.

兩側 專門家들은 많은 문제들에 관한 討議를 하기 위하여 계속 만나고 있다.

- 接境地域往來,
- 水資源 保護 및 境界선지역 부존칼륨 채굴,
- 갈탄채굴,
- 天然가스利用,

- 高速道路 建設,

- 內陸水路 建設,

베를린에서도 베를린내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  
가회담이 열리고 있다. (運河 및 댐건설, 下水處理, 建設措置 등)

## 歐洲安保協力會議 (KSZE)

근 거 : 兩獨間 체결된 諸條約·諸  
協定

1975년 歐洲安保協力會議

最終約款

베오그라드會議 最終文件

2年間の 交渉結果 1975년 8월 1일 헬싱키에서 調印된 歐洲安保協  
力會議 (Konferenz über Sicherheit und Zusammenarbeit in Europa  
<KSZE>) 最終約款은 參加國들의 關係를 이끌어갈 原則을 규정  
하고 있다. 이 原則은 4個分野로 나뉘어져 있다.

歐洲安保問題 (國家間 關係原則에 관한 聲明 포함)

經濟·科學·技術 및 環境分野의 協力,

人道的 문제 및 기타 分野의 協力,

會議의 續開.

이와 같은 會談成果는 1國, 2國, 多國의 次元에서 구체적 措置를  
施行하기 위한 共同的인 政治的 意思表示라는 性格을 갖는다.

歐洲安保協力會議 最終約款은 몇가지 분야에서 東西獨間 체결한 諸  
條約을 補完해 주지만, 그러나 우선은 동서獨간에 체결한 雙方條  
約 및 協定이 양獨간의 특별한 관계 및 基本條約이 추구하는 協

力의 目標에 기준이 된다. 이 條約들은 最終約款에 表現된 原則들과 一致한다.

1977/78년 베오그라드에서 열린 第1次 歐洲安保協力會議 後續會議에서도 西獨政府는, 東西獨間의 雙方交渉 및 規約은 多國間의 歐洲安保協力會議 節次에 구애받지 않으며, 그러나 이러한 節次를 통해서 나온 改善 可能性은 이용되어야 할 것이라는 原則을 따랐다.

베오그라드에서 합의된 專門家會談은 그간 개최된 바 있었다. “科學會議”(Wissenschaftliches Forum) 준비회의가 1978년 여름 본(Bonn)에서, 紛爭의 平和的 規制에 관하여는 1978년 가을 몽트로(Montreux)에서, 地中海問題에 관하여는 1979년 봄 라 발레타(La Valletta)에서, 서독정부가 提案한 科學分野의 協力改善을 위한 “科學會議”(Wissenschaftliches Forum)는 전문가예비회담의 합의에 따라 1980년 2월 후반에 함부르크에서 열렸다.

1980년 11월부터 1981년 봄까지 마드리드에서, 最終約款의 위임에 따라 이제까지의 最終約款의 實現 및 그 以上の 措置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參加國의 보다 깊은 意見交換을 위하여 열린 第2次 歐洲安保協力會議에서도 西獨政府는 統獨政策의 기본입장을 재천명했다.

## 文化關係(Kulturelle Beziehungen)

근 거 : 1972년 基本條約 追加議定書

1973년말 基本條約에서 규정한 文化分野의 協力發展에 관한 政府

協定을 위한 交渉이 시작되었다. 1975년 10월 이래 이 교섭은 중단상태에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文化的 접촉이 완전히 소멸한 것은 아니었다. 兩獨政府의 合意를 바탕으로 1980년 10월에는 상호 간에 映画祭가 개최된 바 있다.

드레스덴 (Dresden), 포츠담 (Potsdam), 프랑크푸르트 (Frankfurt/Oder)에서는 7편의 새로운 西獨 劇映画가 上映되었다. 東獨 側에서도 자르브뤼켄 (Saarbrücken), 두이스부르크 (Duisburg), 브레멘 (Bremen)시에서 새로 제작된 극영화 7편을 가지고 映画週間을 가진 바 있다.

과거 1977년 1월~2월에는 東베를린에서 최초의 西獨 展示會가 개최되었다. 주제는 科學·技術分野의 寫眞展示會였다. 관람객은 15萬名에 달했다. 1979년 가을에는 쾰른 (Köln)에서 東獨 사진전시회가 개최되었다.

이와 같은 國家가 주도하는 交流行事 이외에도 兩獨 文化團體間에 많은 文化交流가 이루어지고 있다. 音樂會 公演이나 書籍商과 같은 商業的 會社들도 文化交流의 增大에 커다란 몹을 하고 있다.

1980년도에는 兩側에서 230회 이상의 招請演劇, 오케스트라연주회, 獨奏(唱)會 公演이 있었다. 그외에도 東베를린 喜歌劇團 (die Komische Oper) 및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管絃樂團의 公演이 있었다. 특기할만한 것으로는 兩側 모두 재즈, 팝, 로크음악 연주단체의 초청 교류가 활발해 지고 있다는 점이다.



미술분야에서도 교류활동이 증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80/81년 사이에 두이스부르크 (Duisburg)의 빌헬름렘브룩 (Wilhelm - Lembruck) 미술관에서 열린 東獨居住 彫刻家 그래픽디자이너인 프리츠 크레머 (Fritz Cremer)의 作品展示會를 그 예로 들 수 있겠다. 동독의 현대 미술가들의 작품의 판매전시회가 최근 여러 번 열린 바 있다.

### 圖書 (Literatur)

근 거 : 1972년 基本條約 追加議定書

兩獨에는 전통깊은 매우 풍부한 書籍出版이 행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다양한 상호간의 協力關係 및 경쟁관계도 나타나고 있다.

푸랑크푸르트 (Frankfurt/Main 서독)에서 열리는 國際書籍博覽會에는 東獨이 정규적으로 40個社 이상이 참가하고 있다. 거꾸로 라이프치히 (Leipzig 동독) 서적박람회에는 서독의 많은 출판사들이 그 출판물들을 가지고 참가하고 있다.

內獨交易에 있어 書籍輸出入이 약 3천 900만 清算單位 (VE)에 달한다 (수출 2천 10만 DM, 수입 1,850만 DM). 매년 평균 약 100種 이상이 동독라이센스版으로 서독에서 출판되고, 동독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서독에서는 東獨의 비소설 및 현대대중소설도 출간되고 있다. 동

독의 독자들에게서 성공을 거둔 베스트 셀러作家の 作品 대부분이 서독에서도 라이선스版으로, 文庫版 形式으로 알려져 있다.

동독에 거주하고 있는 몇몇 作家는 그 作品을 서독에서 먼저 또는 서독에서만 出版한다. 그 이유는 그들의 作品이 東獨에서는 出版許可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태는, 그간 많은 수의 이러한 동독출신 作家들이 서독에서 살면서 活動하게 만드는 결과가 되었다.

## 航空交通 ( Luftverkehr )

西베를린行 航空交通의 기초 : 聯合國의 權利

西獨地域과 東獨間에는 이제까지 小數의 航空往來가 있을 뿐이다. 이것은 임시적인 비행 ( 긴급환자수송, 박람회, 商用 등 ) 에 국한되어 있고, 이것도 兩獨경계를 비행하는 것이 아니라, 발트海 ( Ostsee ) 나 체코슬로바키아를 거쳐서 우회하는 것이다.

東獨과의 航空交通協定은 西베를린의 航空交通問題에 대한 만족할 만한 해결을 가능케 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의 교섭으로 보아 커다란 성과를 기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베를린과 西獨空港간의 이용을 보면 1980 년에 370 만명으로 집계되었다. 1979 년에 비해 2.5 % 증가세이다.

1979 년 4 월 1 일에 서독정부는 西베를린行 비행기편의 요금보조를

새로 규정했다. 1980년도 보조금은 1억 DM에 달했다.

## 베를린障壁 ( Mauer )

서독정부의 조약정책은, 장벽을 쌓게  
했던 상황을 극복하는데 기여해야 한  
다.

1961년 8월 13일 동독은 베를린에 장벽을 축조했다. 이 장벽은 兩  
獨을 分離시키는 가장 강력한 요소이다. ( 경계선에서의 死亡者 참조 )

## 人 權 ( Menschenrechte )

근 거 : 1948년 人權宣言  
1966년 UN人權協約

西獨의 對東獨政策 方向 가운데 하나는 獨逸에서의 人權尊重 促進이  
다. 이에 따라 基本條約 第2條에 兩獨은 政策을 수행함에 있어  
UN헌장의 목적과 原則, 특히 人權의 保障과 非差別原則에 따를 것  
을 규정하고 있다.

서독과 동독은 1966년 12월 16일자로 經濟·社會·文化的 權利 및  
市民, 政治的 權利에 관한 國際協約 - 人權協約 - 에 가입하였다.

독일에서의 人權의 관철이라는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當事者의 利  
害關係가 중요한 것이다. 兩獨間의 利害調整政策은 國家的 分裂에도

불구하고 獨逸人들의 협력을 용이하게 만들고 그럼으로써 人權의 發現·展開를 支援하고 있다.

### 最低交換額 ( Mindestumtausch )

서독정부의 태도 : 관계를 정상화함에 있어서는 항상 協約의 精神을 따라야 한다.

東獨 및 東베를린을 여행하는 경우 15歲이상 1人當, 체재일수당 25 DM, 6歲~15歲의 어린이는 7.50 DM의 最低交換額이 규정되어 있다. 최저교환액이 면제되는 것은 다만 6세미만의 어린이 및 重身體障礙者의 수행자 (장애자의 수행지시 증명서가 있는 경우) 뿐이다.

이 규정은 1980년 10월 13일부터 發效하였고 東獨行 여행왕래를 상당히 어렵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교환액이 2배로 인상되었고 그 밖에도 6세이상의 어린이 및 年金生活者도 최저교환 의무자의 범위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서독정부 및 西베를린 의회는 최저교환액 인상을 비난하였다. 최저교환액 인상은 1972년 交流條約 이후 형성된 人的 交流分野의 成果에 대한 중대한 侵害였다. 이미 1973년에 (1974년말까지) 東獨은 최저교환액을 引上하였었다. 서독정부는 동독정부의 이러한 조치로 야기된 상황을 당사자의 이해관계의 면에서 說明하고자 노력

하였다.

東獨의 換規定 및 關稅, 旅券 기타 여행書類에 대한 개별적 說明은 “접경지역 1日滯留를 포함한 東獨旅行과 東獨通過 第3國旅行”(“Reisen in die DDR mit Tagesaufenthalten in grenznahen Bereich und Reisen durch die DDR in andere Länder”) 팜프렛에 들어있다.

## 民 族 (Nation)

1981년 4월 9일 聯邦首相 슈미트의 獨逸情勢에 관한 政府聲明

아름튼 民族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같은 歷史的 過去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속에는 긍지를 갖게 하는 部分도 있고 후회와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部分도 있다. 民族이란 우리가 세워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을 의무지우기도 하는 未來의 要求이다…….

民族은 오로지 民族이고자 하는 사람들의 意志에 달려있다…….

獨逸民族의 統一을 위하여 정치적으로 의미있는 일은, 平和와 緊張緩化 政策을 계속 밀고 나가면서 全 유럽의 정신적, 文化的, 經濟的 統一性의 回復을 추진하는 길 밖에 없다. 이것은 지난 수 세기간 형성되어 온 多樣性 속에서의 統一性이었다.

獨逸民族은 歷史上 추방되었다. 우리는 오래된 유럽民族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느끼며 우리의 이웃도 우리를 안다. 그러한 한 우리가 獨逸人을 다른 유럽民族과 區分하는 歷史的 自意識은 확고하게 존재하는 것이다.

### UN 機構 (Organisation der Vereinten Nationen)

근거 : 1972 년 基本條約  
1972 년 동서독政府間의 交換  
覺書  
1972 년 四大國聲明

基本條約이 체결된 후 1973 년 9 월 18 일 第28次 UN總會 開幕會議에서 東獨은 133 번째로, 西獨은 134 번째로 UN에 加入하였다. 1976 년 10 월 21 일 서독은 1977 / 1978 년도 UN 安全保障 理事會 非常任理事國으로 選출되었다. 곧 동독도 同理事國으로 選출되었다.

소련은 이미 1973 년 6 월 27 일 UN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書翰에서 西獨은 UN加入後에는 서베를린의 利益을—安保 및 地位問題 以外에—代表한다고 확인하였다.

西獨, 東獨, 오스트리아의 共同發議에 따라서 29次 UN總會는 UN 및 세계보건기구(WHO)의 주요文件을 獨逸語로 번역할 것을 결의하였다.

## 郵便과 電話交流 (Post- und Telefonverkehr)

근거 : 1970, 1971, 1977 우편협정  
1976 우편-전보협정

서독에서 동독으로 보내는 小貨物 및 소포는 1980년에 2500~3000만 개에 달했으며, 동독에서 서독으로 오는 小貨物 및 소포는 약 900만 개에 달했다. 편지왕래는 훨씬 더 많아서 1980년에 서독에서 동독으로 가는 편지는 7500만 통, 동독에서 서독으로 가는 편지는 7000만 통에 달했다.

그밖에 1980년 동독으로부터 104,720개의 꽃다발(120만 동독 마르크)이 서독에 보내졌으며, 서독에서 동독으로는 43,056개(120만 DM)가 보내졌다.

1980년에는 매일 약 63,000통의 전화가 서독 및 서베를린에서 동독 및 동베를린으로 發信되었다. 이는 1970년 4월 이전시기에 비해 약 33배에 달하는 숫자이다. 완전자동식 전화는 점차로 확대 가설되고 있다.(전화교류참조)

서독지역과 동독 및 동베를린 지역간의 Telex 숫자는 35 회선에 서 91 회선으로 증설되었다. 베를린에는 Telex 24 회선이 새로 가설되어 총 35 회선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兩獨間에는 天然色 처리가 가능한 송신 시설(TV)이 설치되어 있다.

1976년 3월에는 兩獨間에 郵便·電報분야의 協定 및 우편, 전보, 우편·전보 通過 서어비스決濟에 관한 3개의 行政協定이 체결되었다.

- 東獨 및 동베를린과의 우편·전보교류는 外國과의 交流가 아니다.(外國의 경우에 물게되는 수수료, 관세부과를 위한 内容物 검색, 국제간에 필요한 書類의 交換이 없다)
- 실질적인 改善(소포의 압류 및 返送의 경우 情報提供, 消毒 증명서 폐지)
- 서독지역과 서베를린간의 우편·전보왕래改善(전화交信을 위한 새로운 中繼所, 우편열차의 추가 운행, 우편물의 도로운송가능)

兩國 우편당국의 비교적 장기간의 교섭결과 1977년 10월 19일에는 우편 및 전화교류에 있어서의 東獨체신 당국의 서어비스 총액이 확정되었는 바, 이것은 交流 및 費用增大를 고려하여 1977년부터 1982년까지의 기간동안 年 8,500만 DM으로 결정되었다. 동시에 이 기간에 702회선의 추가 전화회선 증설도 합의되었다.

## 여행방문교류(I)(Reise- und Besucherverkehr) (I)

근거 : 1972년 기본조약 관련규정

다음 사항이 가능하게 되었다.

### a) 동독여행

- 친척뿐만 아니라 친지에게도,



- 1年間 총 30일 범위내에서 수회여행,
- (일반적으로) 통과로의 자유로운 선택,
- (일반적으로) 동독내의 체류허가,
- (캠핑여행을 포함한) 관광여행,
- 승용차 여행(자동차이용 참조),
- 당일체류, (특히 베를린지역 및 접경지역 거주자)
- 第3國에로의 통과여행, (동독체류付)
- 특별 이유의 방문, (라이프찌히박람회 방문, 스포츠대회 방문 등)

b) 동독에서의 방문

- (年間 총 30일 이내에서 수회) 年金生活者,
- 긴급 家事事由, (동독주민 방문 참조)
- 商用 여행자, 예술가, 화물차운전자 기타 특별한 경우,

여행방문교류 (II)(Reise- und Besucherverkehr) (II)

근거 : 기본조약 관련규정  
 1971년 통과협정  
 1971년 동독정부의 방문협정

1980년에는 약 270만명의 서독인이 동독거주의 친척·친지를 방문하기 위하여 또는 관광목적으로 동독을 방문했다. 교통조약이 체결되기 전인 1971년에 비하여 약 140만명이 증가한 숫자이다.

베를린인이 동베를린에 당일체류한 약 140만명은 계산되지 않았다.

1980년에 동독으로부터는 年金生活 연령자 약 155만명이 서독 및 서베를린을 여행했다.

1980년에는 연금생활연령에 미달하는 약 40,500명의 동독주민이 긴급가사사유로 서독 거주 친척을 방문하였다. (서베를린은 여기에 加算되지 않았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1972년 10월 이후부터이다.

1973년 6월부터는 서독의 접경지역 주민은 동독의 접경지역으로 여행할 수 있게 되었다. 1980년에는 약 392,000명의 여행자가 이 여행을 이용하였다.

서베를린行 및 서베를린發 通過路는 1980년에 약 1,470만 서독인 및 서베를린인이 이용하였다. (통과왕래 참조)

1972년 6월 이후부터 서베를린인은 다시 동베를린 및 동독으로 여행할 수 있게 되었다.

1980년 10월 이후부터 동독 및 동베를린 방문자수가 격감하였다 (베를린에서 50%이상) 그 이유는 1人當, 체류일당 25 DM으로 최저교환액이 引上되었기 때문이다.

## 여행제한 ( Reisebeschränkungen )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오로지 정  
규적인 관계와 교섭의 길 뿐이다.

여행왕래와 접촉의 증가는 또 여러 문제를 야기하였다. 동독의 國家·黨·經濟機構의 특정한 지위에 있는 자, 人民軍要員, 경찰요원은 소위 秘密취급자로서 서독의 친척·친지와 어떠한 접촉도 가져서는 안되게 되어 있다.

서독정부는 동독측과의 대화에서, 비밀취급자의 범위를 가능한 한 축소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976년 말부터 동독은 몇몇 人士에 대해서는 동독입국을 거부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人士는, 과거 동독에서 서독으로 이주한 인사, 동독에서 서독으로 이주를 원하는 자를 약혼자 또는 친척으로 두고 있는 人士이다.

## 損害賠償 ( Schadenersatzzahlungen )

근거 : 1974년 移替協定  
(Transfer-Vereinbarung)

1974년 중반 이후부터 법률상의 채무규정에 따라 직접 피해자에게 또는 그 유족에게 지불되어야 할 物的·人的 손해에 대한 배상금의 지불은 移替가 가능하게 되었다.(책임보험 참조)

## 閉鎖計定 ( Sperrkonten )

근거 : 1972 년 기본조약 추가의정서  
1974 년 이체협정  
1978 년 의정서

1974 년 중반 이후부터 일정한 요건下에서 일정한 限度額內에서 폐쇄계정 貸邊을 兩側으로 이체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요건은, 計定 ( 口座 ) 主의 收入이 주로 老年수당, 환자 기타 사회원조금이거나 또는 計定主가 未成年인 孤兒인 경우이다.

이체에서 제외되는 것은 “土地폐쇄계정” ( 土地貸貸收入 ) 및 “亡命者계정” 및 舊貸邊 ( 감가상각 차입금 ) 이다.

통화개혁 이후 1974 년까지는 동독의 폐쇄계정 貸邊으로부터 移替가 불가능했던 것이 1980 년 말까지는 총액 1 억 5 천만 DM 이상 이 서독에 살고 있는 계정주에게 이체될 수 있었다.

서독에서 동독으로의 이체는 같은 기간동안 5 천만 마르크 이상이 동독에 살고 있는 계정주에게 이체되었다.

폐쇄계정 貸邊協定은 兩側의 支拂은 相互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그러나 서독측은 비교적 커다란 이체의 이익 때문에 서독측의 이체신청 초과현상이 나타나 1976 년 5 월부터는 비교적 장기간의 대기시간을 피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체신청의 접수중단이 필요하게 되었다.

1978년 11월에는, 동독이 1979년부터 1982년까지 연간 5천만 DM을 서독의 이체신청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협정이 체결될 수 있었다. 1979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매 4分期당 600 DM까지 동독으로부터 이체가 되고 있다.

## 스 포 오 츠 ( Sport )

근거 : 1972년 기본조약 추가의  
정서

1974년 서독 스포츠연맹과 동  
독 체조선스포츠연맹간의 의정서  
1974-1980 스포오츠大會계획

기본조약이 발효된 이후 서독 스포오츠연맹 (DSB) 과 동독 체조선스포츠연맹 (DTSB) 간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대화가 재개되었다. 이 차원에서는 서베를린 스포오츠人的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서독 스포오츠연맹 지도부는 서독정부에 주선을 의뢰했다.

1974년 5월 8일 체결된 서독 스포오츠연맹 (DSB) 과 동독 체조선스포츠연맹 (DTSB) 간의 체육관계규정에 관한 의정서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 매년 스포오츠大會 개최계획 합의,
- 서베를린 스포오츠를 동·서독 스포오츠교류에 포함시킴,
- 재정문제에 관한 규칙,

1975년 10월에는 서독 스포오츠 연맹의 공식 대표가 동독을 방문하여 동독스포츠의 정보를 수집했다. 이 방문에 대하여 1977년 동독 체조스포츠연맹회장 에발트(Ewald)가 서독을 방문했다.

서독스포츠 연맹회장 빌리 바이어(Willy Weyer)의 지도아래 서독 스포오츠연맹 대표들은 같은 해 6월 동독의 라이프치히 體典에 참가하였다.

1980년의 계획은 76개 대회가 합의되었는데 그 가운데에 20개 대회가 취소되었다. 주로 동독측의 거부에 의한 것이었다.

1981년에는 75개대회가 합의되어 있다. 서독정부는 정치적 차원에서 서독 스포오츠 연맹의 스포오츠관계 확대노력 특히 가급적 많은 스포오츠종류의 교류확대, 소규모 스포오츠그룹의 참여, 접경지역 및 청소년 스포오츠교류에 지원을 하고 있다. 동독 체조스포츠연맹은 스포오츠접촉의 숫자를 증가시키는 것을 이제까지 거부하고 있다.

## 國 籍 ( Staatsangehörigkeit )

근거 : 1949년 기본법  
1913년의 帝國 國籍法  
1972년 기본조약에 관한 성명  
1973년 기본조약에 관한 聯邦憲法裁判所의 判決

서독에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獨逸國籍이 있다. 동독은 1967년 부터 동독국적을 도입했다.

동독은 1972년 1월 1일 이전에 동독을 떠난 약 300 만명에 달하는 망명자의 동독국적을 박탈하였다.

견해차이를 고려하여 서독은 기본조약 체결에 즈음하여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國籍문제는 기본조약을 통해 규제되지 않는다.”

동독은 기본조약 체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하였다.

“동독은 기본조약이 국적문제 규율을 용이하게 만든다는 입장에 있다.”

## 常駐代表部 ( Ständige Vertretung )

근거 : 1972년 기본조약  
1974년 상주대표부설치에 관  
한 의정서

기본조약에서 양독은 -大使가 아닌 -常駐代表部の 交換설치를 합의 했다.

1974년 5월 2일 서독측 상주대표부는 동베를린에, 동독측은 본 (Bonn) 에서 공식적으로 업무를 개시하였다.

외교관계가 시작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상주대표부는 양독관계 의 모든 영역의 포괄적인 문제를 다룬다. 이러한 기능속에는 외

국에서의 영사 내지는 대사관의 영사부에서 하는 일, 예컨대 自國民의 救護, 援助가 포함된다. 이러한 업무는 양독인간의 관계가 밀접·복잡하기 때문에 큰 의미를 갖는다.

또 상주대표부는 양독의 모든 영역에서의 관계정상화 촉진이라는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다.

서독상주대표는 4대국 협정에 따라 서베를린 市民의 이익을 포함한 서베를린의 이익을 대표한다.

상주대표부의 설치 그 자체로는 장기적으로 보아 어려운 문제가 남아 있는 양독관계 개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표부는 그 활동을 통해서 양독관계의 포괄적인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1974년 5월부터 1981년 1월까지 동독주재 서독 상주대표부는 귄터 가우스次官(Günter Gaus)이 대표로 있었다. 현재의 대표는 클라우스 뵐링(Klaus Bölling)次官이다.

본주재 동독상주대표부 대표는 에발트 몰트(Ewald Moldt)이다.  
(1974년부터 1978년까지는 미하엘 콜(Michael Kohl))

## 當 日 滯 留 (Tagesaufenthalte)

근거 : 1971년 베를린당국 - 동독정부 방문협정  
1972년 기본협정 관련규정



1972년 6월부터 서베를린 시민은年間 총 30일의 범위에서 1회 또는 수회 동독 또는 동베를린을 방문할 수 있다.(1980년 10월 최저교환액인상이전에는 연간 300~340만명에 달했다)

년간 약 140만 서독시민이 서베를린을 동베를린 당일체류 여행을 위하여 이용하고 있다.

당일방문이 가능한 세째번 규정은 1973년 6월부터, 서독 접경 지역주민들이 동독접경지역에 체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1980년에 이 이용자는 392,000명에 달했다.

## 電 話 交 流 (Telefonverkehr)

근거 : 1970, 1971, 1976, 1977년  
우편협정.

양독 우편지역간에는 현재 1,181개 전화회선이 가설되어 있다. 그 가운데 서독 지역에는 608회선 서베를린에는 573회선이 가설되어 있다. 1970년까지는 서독지역에 34회선만이 가설되어 있었다. 모든 통화는 수동식이었다. 서베를린에서 동베를린으로는 19년간 전혀 전화를 할 수가 없었다.

1970년부터 1980년까지 연간 서독발신통화는 70만회에서 2,300만회로 증가하였고 이 가운데 950만통화가 베를린지역 통화이다.

1980년말 서독발신통화중 자동식통화는 서독지역이 87%, 서베를

린지역은 거의 98%에 달했다.

1981년과 1982년에는 각각 양독 우편행정구역간에 120개의 회선이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교환을 거쳐야 하던 동독의 모든 지역 전화망이 서독 및 서베를린에서 완전자동식으로 통화할 수 있게 되었다.

### 경계지역에서의 사망자 (Tote an der Grenze)

에곤 프랑케 장관 : “폭력이 난무하는 경계지역은 선린정책에 대한 신뢰감을 위협하는 요소이다.”

1961년 8월의 장벽건설 이래 1980년말까지 동서독 경계지역에서는 106명이, 서베를린 주위지역에서는 71명이 동독탈출기도중 사망했다.

### 관 광 (Touristik)

근거 : 양독 관광국사이에 체결된  
계 협약 (1972/73 이후)  
1972년 기본조약 및 교통조약  
관련규정

동독행 관광여행은 해가 감에 따라 다양해지고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서독지역 및 서베를린지역의 많은 여행사는 동독의 여행국

과, 여러 여행사에서 제공하게 되는 다양한 계획을 협의해 놓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관광여행의 경우에는 여행사에서 계산한 비용 이외에 추가로 최저액 교환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 내 역

- 41개 도시의 70개 호텔을 이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1泊에 30~100DM.(승용차 또는 열차이용 여행자 개인당)
- 오스트제(Ostsee)와 튀링겐 森林(Thüringer Wald) 사이의 24개 캠핑장소를 이용할 수 있다.(캠핑참조)
- 수일간의 도시여행 또는 일주여행은 여러가지 목적과 계획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여행단체나 개인예약으로도 가능하다.(공동 버스, 열차, 호텔, 시찰, 여행안내)
- 전서독지역, 접경지역 당일왕래, 서베를린에서 버스편 당일소풍.  
△ 서독버스로도 可하다.
- 특별한 일의 단체여행.(演劇祭, 박람회, 스포츠大會)
- 서베를린 발 동베를린통과 도시일주여행.(특별 서식필요없음)
- 트라베뮌데(Travemünde)발 로슈토크/바르네뮌데(Rostock/Warnemünde)행 당일호수여행.(특별 서식 필요없음)
- 취미 및 수학여행.(철도, 민속예술, 미술관, 건축, 루터行蹟, 울겐제조 등)
- 오스트제, 튀링겐 森林 또는 동부스위스 휴가체류.

관광요목 및 관광회사주소는 < 77個 要目 > ( 77 praktische

Tips) 팜프렛 책자에 수록되어 있다.

1972/1973년 기간중에는 최초로 약 5,000명이 관광여행을 이용한 반면 1980년에는 약 150,000명의 여행자가 서독 및 서베를린 여행사의 주선을 받았다.

### 베를린행 및 베를린발 통과왕래 ( Transitverkehr von und nach Berlin(West) )

근거 : 1971년 통과협정  
1975, 1977, 1978, 1980  
통행협정

1980년에는 육로를 통하여 서독 및 서베를린주민 1,470만명이 서베를린행 또는 서베를린발 통과왕래를 이용했다. 통과협정이 없던 1971년과 비교해 볼 때 통과여행자의 수는 倍加했다.

1975년, 1977년의 베를린 왕래개선협정은 다음과 같은 성과를 가져왔다.

- 1976년부터 1979년까지 베를린-마리엔보른(Berlin-Marienborn)간 고속도로 건설 및 베를린 순환노선 部分區間の 건설 및 6車線 擴張.
- 여행열차왕래를 위한 슈타아겐(Staaken) 통과소 개통 및 이를 통한 함부르크행 열차운행시간 45分단축 및 서베를린에

3 개의 추가왕래정거장 건설.

- 추가 열차운행 및 운행시간단축

1978년 11월의 교통협정은 다음과 같은 성과를 가져왔다.

- 1979년부터 1982년까지 베를린~함부르크간 고속도로 건설.(서독은 이를 위하여 12억 DM을 준비하고 있다.)
- 베를린행 내륙수로교통을 위하여 수로상에 또는 로텐제예인소에 긴급시 필요한 수리작업반 설치.(서독에서는 이를 위하여 1,200만 DM을 준비하고 있다.)
- 베를린행 우회를 막기 위하여 텔도우운하(Teltow-Kanal)를 개수하여 직선운항로를 개통한다.(이를 위하여 7천만 DM을 서독은 준비하고 있다.)
- 기타 왕래개선은 1980년 4월의 협정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헬레스하우젠(Herleshausen) / 바르타(Wartha) 고속도로 건설, 중부내륙운하(Mittellandkanal) 확장 및 베를린-헬름슈테트간 철도복선화, 객차의 세차정비를 위해서 뤼멜스부르크(Rummelsburg)에 세차·정비창을 신설하는 것 등이다.
- 베를린 왕래의 장기적이고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1980년부터 1989년까지 통과료 총액을 연간 5억 2,500만 DM로 확정했다.

서베를린행 및 서베를린발 통과왕래에 관한 중요한 정보는 “서베를린 발착여행”(Reise nach und von Berlin(West)) 팜프렛 참조.

## 事故時 지원 ( Unfallhilfe )

근거 : 1971년 통과협정  
: 1972년 교통협정

자동차를 가지고 여행하는 사람을 위하여 동독도로에는 도로구조반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작업을 통해서 사고 차량은 운반, 응급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차량구조작업반은 매일 6:00시부터 22:00시 까지 대기하고 있다.

## 扶養料支拂 ( Unterhaltszahlungen )

근거 : 1974년 이체협정

1974년 중반 이후부터, 미성년자(피양육자 및 일정한 요건하에서 成年被扶養者에 대한 家族法상의 부양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부양료지불은 移替될 수 있다.

## 財産問題 ( Vermögensfragen )

근 거 : 1972년 기본조약에 관한 의정서메모

국가의 處分權下에 있는 재산( 망명자의 재산, 舊西獨側 재산 )과 東獨外換法을 포함한 一般法규정이 적용되는 재산으로 재산을 나눌 수 있다.

양측의 법적 지위의 차이로 말미암아 이론의 여지가 많은 재산 문제는 기본조약에 규정되지 못했다. 포괄적 규정을 두는 데 장애가 되었던 사항은 시간이 지나도 줄어들지 않았다.

국가의 특별한 강제처분권하에 있지 않는 재산의 경우는 1974년 및 1978년의 이체협정으로 최초의 발전이 있었던 셈이다.

서독은 자문과 개별적인 경우 원조조치를 통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당사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다.

서독정부는 동독측이 개인재산에 대해서 취한 조치를 동독과의 조약 및 기타 방법으로 승인할 용의가 과거에도 없었으며 현재에도 가지고 있지 않다.

동독은 1976년 9월 재산처리문제를 이제까지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해결하겠으며 재산문제에 관한 제증명을 이제까지 보다 더 광범위하고 빠른 기간내에 송부하겠다고 약속했다.

## 條約政策 (I)( Vertragspolitik I )

근 거 : 1970 ~ 1979 체결된 조약과 협정

이제까지 양독간에는 다음의 조약과 협정이 체결되었다.

- 우편 및 전보왕래에 제공된 서어비스 결제협정 ( 1970.4.29  
우편료일괄처리 신규정은 1977.10.19 )
- 우편, 전보왕래교섭의정서 ( 1971.9.30 )
- 교통문제에 관한 조약 ( 1972.5.26 )
- 동서독기본조약 ( 1972.12.21 )
- 경계水脈의 훼손 및 유지에 관한 원칙협정 ( 1973.9.20,  
1978,11.29, 경계위원회참조 )
- 상주대표부설치에 관한 의정서 ( 1974.3.14 )
- 부양로지불 및 일정한 경우 貨邊이체에 관한 협정 ( 1974.  
4.25, 1978.11.16 )
- 보건제도 분야협정 ( 1974.4.25 )
- 뤼벡만 一部수역에서의 어로에 관한 협정 ( 1974.6.29 )
- 동서독간의 해역경계선에 관한 의정서메모 ( 1974.6.29 )
- 서베를린발착 통과로개선에 관한 협정  
( 1975.12.19, 1977.12.22, 1978.11.16, 1980.4.30 )
- 우편, 전보제도 분야 협정 ( 1976.3.30 )
- 헬름슈테트/하르프케 ( Helmstedt/Harbke ) 지역 경계통과 갈탄  
광채굴에 관한 협정 ( 1976.5.19 )
- 自動車세 및 도로사용료 면제협정 및 승용차 도로사승료일괄  
지불협정 ( 1979.10.31 )
- 수의사제도 분야의 협정 ( 1979.12.21 )

그 외에도,



- 서독 스포오츠연맹 (DSB) 과 동독 체조스포츠연맹 (DTSB) 간 스포오츠관계 규정에 관한 의정서 ( 1974.5.8 )
- 베를린 및 베를린왕래관계 조약 및 협정
- 베를린에 관한 四大國協定 ( 1971.9.3 )
- 서베를린발 - 착 통과왕래에 관한 협정 ( 1971.12.17 )
- 베를린당국과 동독정부간의 여행방문 왕래 및 베를린 규정에 관한 협정 ( 1971.12.20 )

이외에 지역문제 규율에 관한 협정이 있다. (예컨데 下水 및 쓰레기처리, 지역경계상의 사고시 구조 조치등) 여기에는 슈판다우 저수지의 第2水門 건설협정( 1977.12.1 ) 및 南部路線 (Südgelände) 철도의 신설( 1980.1.24 )이 포함된다.

## 條約政策 (Ⅱ) ( 교섭 및 對話 )

### ( Vertragspolitik Ⅱ )

에곤 프랑케장관 :

“ 타협과 선린의 정신이 없이는 우리는 진보할 수 없다. 兩側이 이미 얻은 타협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동서유럽간의 균형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양독간의 조약정책이 갖는 신뢰성과 가능성은 우리가 한발 후퇴해야 하는 곳에서 까지도 타협과 함께 살 용의가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

서독조약정책의 기본입장은 기본조약에서 천명된 선린관계를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 및 人道문제의 장래발전에 상당한 중요성을 갖는다. 이에 기존의 협정을 완전히 적용하는 것은 아직까지 미해결로 있는 교섭의 지속적인 추진만큼 그 중요성이 평가되어야 한다.

서독상주대표의 노력과 계속 추진하고 있는 대화 이외에도 다음 분야에서 동독과 교섭이 계속되고 있다.

- 법교류분야의 조약체결을 위한 교섭,
- 학문 기술분야 협력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
- 문화분야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

△현재는 중단되어 있다. (문화교섭 분야에서는 서적, 신문 및 라디오, TV 제작물의 상호교류가 논의된다.)

- 왕래문제에 관한 교섭,
- 교역 및 경제관계문제 교섭,
- 기타 관계정상화를 위한 교섭,

예컨대 비상업상의 결제개선 및 환경보호개선. (예, 수자신보호 1980년 9월부터 전문가회담)

(경계위원회참조)

## 獸醫師制度 ( Veterinärwesen )

근거 : 1979 년 수의사협정

1979 년 12 월에는 양독간에 수의사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은 인간 및 동물을 위하여 피해가 큰 동물병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양국간의 협력기반을 조성해 준다. 이 협정은 양독간의 동물 및 동물생산물의 많은 교역을 고려해 볼때 커다란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것이다. 서베를린은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의사협정에 加入되어 있다.

## 물품 및 상품운송 ( Waren- und Güterverkehr )

근 거 : 1971 年 통과협정 관련규정

1972 년 6 월부터 베를린발착 콘테이너 貨物 운송에는 특히 유리한 조사절차가 행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봉인된 화물의 경우 동독에서의 조사절차는 봉인의 확인 및 화물운송 서류의 조사에 그친다. 화물운송증은 새로 서식이 마련되어 매우 간단해 졌다. 서독당국의 승인은 필요없다.

## 경제관계 ( Wirtschaftsbeziehungen )

근거 : 1951 년 베를린협정  
1972 년 기본조약  
1976 년 갈탄협정

기본조약 추가의정서에서 양측은 기존 협정의 기반위에서 교역을 증진할 것에 합의했다. 이 목적을 위하여, 경제관계의 지속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낡은 협정을 쇄신하고 무역구조를 개선하는 장기 협정이 체결해야 하게 되었다.

이 규정에 따라 비철금속, 철, 강철 및 기계제조 분야의 부분적 후속협정이 체결되었다.

1975년에는 차관협정이 체결되었다.

이것은 양측 공동추진 협력협정을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헬름슈테트/하르프케지역의 경제통과 갈탄광 채굴협정 및 부스트로우/잘츠베델(Wustrow/Salzwedel)의 천연가스 채취를 위한 교섭도 경제관계의 맥박에 속한다. 1976년 여름에는 석탄경제포시 기동건설이 시작되었는데 이는 아마도 16년의 기간이 걸릴 것이다. 천연가스 채취는 동독에서는 1968년에 서독에서는 1976년에 시작되었다.

1979년 9월 5일에는 베를린협정을 근거로 동독과, 동독에 석탄 및 원유를 공급하는 데 관한 교환각서 및 동독으로 부터 1980년에서 1985년까지 석유생산물을 수입하는 데 관한 교환각서가 체결되었다.

#### 支拂 ( Zahlungen )

1980년 서독예산에서 직접 간접으로 동독에 보내진 액수는 다음과 같다.

단위 : 백만 DM

- 525.0 - 통과 總額, ( 서독 및 서베르린간 왕래를 위한 위한 개인 통과료 )
- 50.0 - 도로사용료 총액,
- 270.0 - 베를린 - 함부르크간 고속도로 건설,
- 1.2 - 헬름슈테트 - 베를린간 고속도로건설 잔여분,  
바르타 - 헬레스타우센 고속도로 건설 및 베라제곡 ( Werratal )
- 10.0 - 大橋건설,
- 30.0 - 베를린행 통과수로 건설,
- 17.5 - 베를린텔토우 운하 개통,
- 12.0 - 서베를린人的 동독 및 동베를린여행 입국허가료,
- 6.7 - 60 세이상 서독인의 동독여행 비자수수료 보조금,
- 96.5 - 서독체신청 예산항목에서 지불액, ( 베를린 서신왕래 서비스 및 우편총액 ),

1,018,9  
백만 DM

人道分野에서 서독정부는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 支拂手段 ( 貨幣 ) 및 淸산단위 決濟 ( Zahlungs- und Verrechnungsverkehr )

근거 : 1972 년 기본 약 추가의정서  
1974 년 및 1978 년 이체협정

양독간의 상업관계(교역중 상품 및 서비스)는 清算계정에서 清算單位(결제단위)로 이루어 진다.

1974년 4월 25일 동독과 체결된 2개의 협정을 근거로 부양료지불, 손해배상지불 및 일부 폐쇄계정 貸邊과 같은 비상업적 분야에서도 雙方間에 이체가 가능하다. 1978년 11월의 협정에 따라 동독은 1982년까지 총 2억DM을 서독의 이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동독과 체결한 협정은 포괄적 규정의 1步이다.(부양료지불, 손해배상지불, 폐쇄계정 참조.)

## 경계지역 장려시책 ( Zonenrandförderung )

근 거 : 1971년 경계지역 장려법

1971년 이후 경계지역에 대한 원조조치는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계지역의 생활 및 노동조건, 경제, 사회구조를 기타 서독지역의 발전과 상응하게 만들기 위하여 상당히 확대되어 추진되었다.

장려시책은 다음을 목표로 한다.

- 경제역량강화,
- 교통형편 개선,
- 사회 문화시설의 건설을 포함한 주거 및 여가선용기회 확대,

서독의 경계지역 장려가 갖는 특별한 의미는 특히 다음의 수치에서 잘 나타났다.

- 경제장려를 위해서 1980년에는 “지역경제구조개선”을 위한

공동사업에 연방은 2억 8백만 DM을 투입했다.

- 같은 해 경제지역에 투자증대법에 따라 약 1억 9,400 만 DM이 부여되었다.

여기에서 연방은 이 조치로 인해 생긴 결손 9천 100 만 DM 을 부담하였다.

- 경제지역에서만 가능한 투자기업의 특별감가상자 및 준비금으로 1980년에는 8억 4,500 만 DM의 감세를 받았다.
- 마샬플랜 특별재산 대출금은 1980년 4억 3천 6백만 DM으로 마 샬플랜 중소기업 육성지역계획에서, 1,680 만 DM은 마샬플랜 - 촌락계획에서 사용하였다. 그 이외에 기타 마샬플랜 중급계획에서 유리한 이율의 차관을 경제지역 개발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다.
- 경제지역의 사회, 文化시설에는 1980년 서독의 보조금 1억 6,860 만 DM이 제공되었다.

182 개 학교

88 개 유치원

188 개 스포츠시설

43 개 직업교육시설

13 개 재활시설 및 장애인공장

66 개 청소년근로소

6 개 노인시설

9 개 휴양시설

792 개 문화사업

- 경제지역의 사회 주택건설을 강력히 촉진하기 위하여 1980년

일반주택 건설자금에서 1,960 만 DM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숫자에는 정치교육, 수학여행, 방문자보호, 정보여행 등에 사용된 금액이 계상되어 있지 않다.